





## 대학생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박 선 영\*

### 〈요 약〉

본 연구는 성매매 방지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된 방해요인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나이, 성별, 학년, 전공,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 평등 의식, 음란물 시청 횟수, 성매매 경험 여부, 성매매·성폭력·인권교육 여부 등이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다. 5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 사회복지 및 신학전공,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성평등 의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즉, 남학생, 사회복지 및 신학 전공자,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응답자,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이 높은 응답자가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개발과 포괄적인 인성교육의 실시, 효과적인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의 개발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주제어 :** 성매매 여성, 성매매, 성평등 의식, 공감능력, 예방교육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문제제기<br>II. 선행연구<br>III. 연구방법<br>IV. 연구결과<br>V. 결론 |
|---|

## I. 문제제기

2004년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의 보호를 목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위배라는 반대의 의견과 도덕적 타락과 인간의 상품화를 막자는 찬성 의견이 팽팽했지만(박혜진, 2009), 법제정을 통해 알선자와 매수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자활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는 증가했으며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급증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수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따라서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성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되고 있다. 관련 당국의 인식부족, 의지부족,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 다변화하는 성매매 시장에 대한 관련 당국의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2007년 1차 조사, 2010년 2차 조사, 2013년 3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2016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처 능력 부족,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만연된 관대함, 국민의 인식부족 등이 성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못하고 있는 방해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박혜진, 2007; 여성가족부, 2014; 한국여성개발원, 2005). 성매매 방지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특히 성매매 단속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인식부족과 역량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구체적으로 경찰서 단위의 성매매 전담 팀의 부재, 전문지식의 부재, 단속과 수사의 이원화된 구조와 더불어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4). 경찰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발적 성매매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성매매에 관련된 입법동향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추진되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 2014). 성매매 실증조사를 통해 자발적 성매매라 할지라도 성매매의 본질상 여전히 성매매는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이며, 물리적 폭력이 아닌 심리적 강제기제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탈 성매매를 억압하는 점, 협박과 기만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경제적 종속관계에 놓이게 하는 점, 강요된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이 들어났다(김현선, 2002; 여성가족부, 2014; 한국양성평등진흥원, 2009; 한국여성개발원, 2005).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의 조직범죄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연구결과,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수익은 연간 140조원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가 하는 사업중에 유흥업과 연결되는 성매매는 불법도박과 대부업을 통한 수익을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산업에서의 조직범죄단체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제와 강압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성매매 여성의 피해자적 위치에 대한 진단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4년 경찰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강제적인 성매매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이 경찰들에게 확산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4). 즉, 과거에 비해 현재는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착취, 억압 등 포주와의 관계성과 상황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성매매

사건의 형사처리 결과는 담당 경찰관의 경험, 인식, 의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 2014; 국가인권위원회, 2012; 한국여성개발원, 2005). 경찰서 단위의 성매매 전담팀이 부재하기 때문에 신고,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가 인지수사보다 많은데 이런 경우 특히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여성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한국여성개발원, 2005). 가장 최근 조사인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업계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의 선불금이 존재하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 협박, 강압이 존재한다(여성가족부, 2014).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에게 교육을 받아 경찰 조사 시에 자신들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것이며 선불금 등의 경제적 착취나 기만이 없다고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여성가족부, 2014;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찰관들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거나 업주를 고소하는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며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피의자로 검거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공정식, 2015).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건을 의뢰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진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악덕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할 경우 인식과 지식이 있는 경찰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관행을 보인다(여성가족부, 2014; 국가인권위원회, 2012).

또한 최근에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한 처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조진경, 2016). 성매매를 한 여성/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sup>2)</sup>”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다른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보호처분<sup>3)</sup>”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 여성과 동일하게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성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항 7호의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를 한 자 혹은 유인, 권유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대상아동·청소년들은 동법 40조에 따라 「소년법」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3)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범죄기록, 수사경력 자료가 남게 되며, 절도, 강도, 방화,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를 비행 청소년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매 피해 사실을 고소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조진경, 2016). 성매매의 대상이 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피해자로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교육을 통한 경찰의 인식개선, 여성 경찰의 배치, 성매매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의 구성, 여성단체와의 협력, 수사시 성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인<sup>4)</sup>의 활용 등이 건의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한국여성개발원, 2005).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찰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팽배해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개선되어 피해자에 요건에 부합되는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매매 현황이나 성매매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태도 조사는 많이 시행되었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만을 독립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구성 요인도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통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 방지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된 방해요인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다. 법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에 대한 인식조사에 앞서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교육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신입 경찰교육생의 인식, 현직 경찰의 인식과 함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일반 국민은 물론 법집행 예정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매매 여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활용될 것이다.

4) 2013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다시 함께 상담센터가 공동으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경찰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II. 선행연구

성매매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성매매 관련 법안(이덕인, 2015; 박성민, 2015; 임상규, 2005), 정책의 변화(조국, 2003; 김복규 & 김선희, 2006; 박정미, 2011; 박찬걸, 2012), 성매매에 대한 태도 및 인식(정진경 & 양계민, 2003; 이규은, 2005; 김태완, 2014),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신정미 외, 2012; 전병주 & 윤상용, 2015). 반면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나 인식, 이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포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성을 사는 남성에게는 관대한 반면 성을 사는 여성에는 편견과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이규은, 2005; Kim, 2003; Jung & Yang, 2003).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거리 측정 연구에서도 들어났다. 2001년에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는 12개의 다양한 오점 보유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12개 집단으로는 지체장애인, 작은 키, 불임 여성, 정신지체인, 약물 중독자, 비만인, 이혼녀, 시청각 장애인, 전과자, 무의탁 노인, 고아, 성매매 여성이 제시되었다. 성매매 여성은 약물 중독자에 이어 응답자들에게 사회적 거리감이 두 번째로 강한 집단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과자 보다는 더 큰 사회적 거리감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 참여자들에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년 1,20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오픈 소사이어티의 설문조사에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2004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성매매 여성을 남성의 왜곡된 성문화의 피해자로 인식한다고 답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INS Korea, 2004). 이러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오혜란(2004)은 2000년과 2002년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그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성매매는 필요악이며, 성매매 여성은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성매매 여성은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의 제정을 이끌었다고 논했다. 김명환과 안혁근(2006)도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국가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Ingram과 Schneider(1997)의 주장에 주목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성매매 실태조사는 2013년에 실시되었으며 성매매 현황, 성매매 여성의 경험, 성구매 사범의 인식, 일반 남성의 인식 등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4). 성구매 사범으로서 존스쿨 수강자 2,200명과 일반 남성 1,200명에 대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인지,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존스쿨 수강자인 응답자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정도는 보통 이하였다. 5점 척도의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이 왜곡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존스쿨 응답자들의 평균은 2.78로 보통(3점)보다 낮은 정도를 보였다.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는 지역, 학력으로 경기도 지역의 응답자와 학력이 낮은 응답자가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응답자의 평균은 3.1로서 존스쿨 응답자보다 점수가 더 높아서 좀 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무직일수록, 미혼일수록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매매 여성을 성문화의 피해자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5점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의 평균은 3.31로서 보통(3점) 이상을 상회하여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 인식차이가 유의미하여, 충청도 지역의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했다. 일반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지의 정도에 대해서는 존스쿨 응답자보다 더 높은 3.4점으로 조사되어 성매매 여성을 성문화와 성산업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했다.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동거가족이 있을수록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성매매 자체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성별, 성평등 의식, 연령, 성매매 경험 등이 주요 변수로 조사했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진경과 양계민(2003)이 실시한 성매매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성매매의 정당성, 사회적 필요성과 함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네가지 항목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강했으며, 다음으로는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인식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이러한 두 가지 의견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신정이·황혜원·박현순(2012)은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양하여 성구매와 판매 의도를 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1,515명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 보다 성매매에 대한 유해성을 더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Basow와 Campanile(1990)의 대학생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성매매를 성착취로 인식하고,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였다. Jakobsson과 Kotsadam(2009)의 연구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설문참여자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매매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와 함께 성평등 의식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조사된다. 위에서 논의된 정진경과 양계민(2003)의 연구에서는 성평등의식이 약한 사람일수록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며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규은(2005)의 남자 대학생에 대한 조사에서도 정진경과 양계민의 연구와 동일하게 성매매의 정당성, 사회적 필요성,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정진경과 양계민(2003)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조사 참여자인 남자 대학생들은 성매매는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이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의식이 낮을수록 성매매가 필요하며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병주와 윤상용(2015)의 남성 성매매 태도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한 편견이 낮고 성매매 의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태완(2014)의 연구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낮을수록 성매매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다. 신정이 외(2012), Jakobsson과 Kotsadam(2009) 연구에서도 성 평등 의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성매매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령 또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태완(2014)의 존스쿨 수강자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신정이 외(2012)의 청소년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좀 더 지지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전병주와 윤상용(2015)의 남성의 성매매 의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나이가 젊은 응답자에 비해 많은 응답자의 성매매 의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2013)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강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했다.

성구매 경험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조사되어왔다. 이은진(2009)의 남성의 성매매 인식 연구에서는 성구매 유경험자들이 남성 중심적 사고를 더 가지고 성매매의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규은(2005)의 남자 대학생에 대한 조사에서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매매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반면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에 Brehman(2010)의 남자 대학생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성매매 경험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분석 틀과 연구표집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성별, 나이, 학년, 전공,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 음란물 시청회수, 성매매 경험 여부, 성매매/성폭력/인권교육 등이 조사되었다. 각 요인별 구체적인 가설은 <표 1>과 같다.

〈표 1〉 가설

변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
성별	+ 여성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나이	+ 나이가 많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학년	+ 고학년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전공	경찰행정 - 경찰행정 전공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다.
	사회복지/신학 - 사회복지/신학 전공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기타전공 - 기타 전공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종교유무	+ 종교가 있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종교적 신념	+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가정형편	-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공감능력	+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성평등의식	+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음란물 시청횟수	- 음란물 시청횟수가 많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성매매 경험여부	성매매 경험이 있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인권 교육	+ 대학에서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대학생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한 대학에서 2016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총 51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 실시를 공고하였으며, 학년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각 학년별로 120~130명 정도로 참여를 제한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익명성과 자발성, 연구내용의 비밀유지 및

통계적 사용 목적을 설명한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이에 서명을 한 후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513명의 설문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502명의 설문지가 분석됨으로서 전체적으로 응답률은 97% 상당이었다.

## 2. 연구변인

### 1) 종속변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Levin과 Peled(2011)가 개발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Prostitutes and Prostitution Scale, APPS)”와 Melvin et al이 개발한 “수형자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Prisoners, ATP) 척도가 사용되었다. Levin과 Peled(2011)이 개발한 29개 문항의 척도는 “자발적/피해자적 성매매 여성(prostitutes as choosing/victimized”, “규범위반/일탈로서의 성매매 여성 (Prostitutes as normative/deviant)”, “자발적/피해자적 성매매(Prostitution as choice/victimization)”, “규범위반/일탈로서의 성매매 (Prostitution as normativeness/deviance)”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이므로 네 개의 하위 구성 요소 중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만을 측정할 14개 문항 중에서 한국적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는 4개의 문항(예를 들어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은 마약중독자 들이다)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Melvin과 동료들(1985)이 개발한 36개 문항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Prisoners, ATP)에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활용할 수 있는 14개 문항을 사용하여 총 24개 항목이 사용되었다.

각 항목은 전혀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에 사용될 변인을 생성하는 방식은 24개 항목에 대한 값을 더하고 항목의 개수(24)로 나눔으로서 본래 척도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의 높은 값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24개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5이하이며 요인적재량이 .5 이하인 4개의 항목을 삭제하고 총 20개 항목을 종속변수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20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모두 .503 이상이었으며, 요인적재량은 .523, 초기 고유값은 1.150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문항들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문항들에 의해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

는 KMO와 Bartlett 값은 .921로 높은 편이며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유의확률은 0.000이므로 적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06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2) 독립변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1)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성별, 학년, 전공,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2) 공감능력 (3) 성평등 의식 (4) 음란물 시청 횟수 (5) 성매매 경험 여부 (6)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 교육 여부 등이 조사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학년, 전공, 종교,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이 조사되었다. 전공간 비교를 위해서 미래에 경찰이 될 경찰행정학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및 신학부, 일반 전공간의 인식 비교가 이루어졌다. 종교적 신념과 가정형편을 측정하기 위해 왼쪽 끝단에 매우 약하다/매우 못산다와 오른쪽 끝단에 매우 강하다/ 매우 잘산다로 표시된 10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창호, 신나민(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7개 항목의 공감능력 척도가 사용되었다.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5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요인적재량>.508, 초기고유값=1.051)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 =.718)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성평등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이 개발한 80개 항목의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 KGES)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5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요인적재량 > .522, 초기고유값=1.037)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 =.977)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사용될 변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80개 항목에 대한 값을 더하여 항목의 개수(80)로 나눔으로써 본래 척도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음란물 시청 횟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나는 지난 1년간 음란물(야동, 성인 에로물, 잡지) 등을 찾아본 적이 있다”를 질문하였으며 답변으로는 없다, 1년에 1~2번, 1년에 3~4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5번, 하루에 1~2번, 하루에 3번

이상 등이 제시되었다. 성매매 경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을 사는 성매수를 한 적이 있다”와, 관련 교육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나는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성평등, 성매매, 성폭력, 인권에 관련된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있다”와 “없다”가 제시되었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 참여한 502명 대학생 응답자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18세부터 27세까지이며 평균 연령은 20.9세였다. 남성이 235명으로 46.8%, 여성이 조금 더 많은 267명으로 53.2%를 차지하였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이 124명으로 24.7%, 2학년이 120명으로 23.9%, 3학년이 132명으로 26.3%, 4학년이 126명으로 25.1%로, 학년별로 고르게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응답자의 전공으로는 기타가 341명인 67.9%이며, 경찰행정은 19.9%인 100명, 사회복지 및 신학부는 61명으로 12.2%였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55.6%(279명), 있는 응답자가 44.4%(223명)이었으며 종교적이라고 응답한 223명의 종교적 신념은 최소 1에서 최대 10으로 평균은 6.4로 중간(5점) 이상이었다. 응답자가 인지하는 주관적인 가정형편은 못산다 1에서 잘산다 10까지로 평균은 5.92로 중간(5점) 이상이었다. 공감능력과 성평등 의식은 각각 최소 1에서 최대 5점까지였다. 공감능력의 평균은 3.67로 보통(3점) 이상이었으며 성평등 의식의 평균도 3.83으로 보통(3점) 이상이었다. 음란물 시청회수는 없다(1)에서 최대 하루에 3회 이상(8)까지였으며, 평균은 2.81로 1년에 3~4회(3점) 이하였다.

성매수 경험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인 94.2%(473명)이 성을 구매한 경험이 없었으며 5.8%인 29명 응답자는 지금까지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성매매 교육과 관련해서는 46.8%인 235명이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표 2〉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N=502)

요인분류		n		표준편차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		평균 3.20		.620
나이	18~ 20세	251명	50%	2.06
	21세~23세	186명	37.1%	
	24세 이상	65명	13%	
성별	남자	235명	46.8%	.499
	여자	267명	53.2%	
학년	1학년	124명	24.7%	.117
	2학년	120명	23.9%	
	3학년	132명	26.3%	
	4학년	126명	25.1%	
전공	경찰행정	100명	19.9%	.805
	사회복지/신학부	61명	12.2%	
	기타	341명	67.9%	
종교유무	없다	279명	55.6%	.497
	있다	223명	44.4%	
종교적 신념		평균 6.40		2.51
가정형편		평균 5.92		1.74
공감능력		평균 3.67		.575
성평등 의식		평균 3.83		.626
음란물 시청	(1) 없다	195명	38.8%	2.81
	(2) 1년에 1~2회	55명	11%	
	(3) 1년에 3~4회	56명	11.2%	
	(4) 한달에 1~2회	99명	19.7%	
	(5) 일주일에 1~2회	65명	12.9%	
	(6) 일주일에 3~5회	15명	3.0%	
	(7) 하루에 1~2회	10명	2.0%	
	(8) 하루에 3회이상	7명	1.4%	
성매수 경험	없다	473명	94.2%	1.812
	있다	29명	5.8%	
성매매 예방교육	없다	267명	53.2%	.499
	있다	235명	46.8%	
성폭력 예방교육	없다	223명	44.4%	.497
	있다	279명	55.6%	
인권수업	없다	317명	63.1%	.4830
	있다	185명	36.9%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인 53.2%(267명)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과반수 이상인 55.6%(279명)이 지난 1년 동안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 인권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36.9%(185명) 만이 받은 적이 있고, 63.1%(317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인권교육의 경험이(36.9%) 가장 적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이(53.2%)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문항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였으며 평균은 3.20으로 보통(3)보다는 약간 높게 조사되어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지지적 인식이 다소 강했다.

## 2.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 가운데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학년, 전공, 종교유무 등과 음란물 시청 횟수, 성매수 경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교육, 인권교육 등은 명목변인과 서열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단간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집단간 인식차이는 성별, 학년, 전공, 음란물 시청횟수, 성매매 경험 여부,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관련 수업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년간 비교에서는 1학년이 가장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 태도를 보였으며 2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공간 비교에서는 사회복지/신학이 가장 긍정적/지지적 태도를 보였으며 기타전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음란물 시청횟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시청한다고 측정되는 하루에 3회 이상의 응답자들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평균인 3.20 이하인 1.88을 나타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 경험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성매매 경험이 있는 집단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평균 이하의 인식을 나타냈다.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관련 수업 모두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지지적이었으며, 인권관련 수업을 들은 응답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종교의 유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표 3〉 집단에 따른 평균의 차이

		n	F-ration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235	8.78**	3.12	.683
	여자	267		3.28	.551
학년	1학년	124	3.00*	3.29	.581
	2학년	120		3.07	.776
	3학년	132		3.25	.544
	4학년	126		3.20	.549
전공	경찰행정학	100	9.88***	3.32	3.32
	신학/사회복지	61		3.46	.567
	기타전공	341		3.12	.626
종교유무	없음	279	2.52	3.16	.624
	있음	223		3.25	.615
음란물 시청횟수	없음	195	12.80***	3.23	.598
	1년에 1~2회	55		3.39	.554
	1년에 3~4회	56		3.22	.437
	한달에 1~2회	99		3.26	.508
	일주일 1~2회	65		3.16	.543
	일주일 3~5회	15		3.27	.642
	하루 1~2회	10		1.99	1.03
	하루 3회이상	7		1.89	1.11
성매매 경험	없다	473	60.69***	3.25	.540
	있다	29		2.38	1.11
성매매 예방교육	없다	267	7.33*	3.13	.661
	있다	235		3.28	.563
성폭력 예방교육	없다	223	13.99***	3.09	.664
	있다	279		3.29	.569
인권관련 교육	없다	317	8.93**	3.14	.639
	있다	185		3.31	.573

\*p<.05, \*\*p<.01, \*\*\*p<.001

독립변수 중에서 나이, 종교적 신념,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 등이 등간변인인 점을 고려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서 보이듯 변수 가운데 종교적 신념,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응답자 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한 긍정적/지지적 태도를 보였다. 상관관계의 강도에 있어서는 성평등 의식(.49)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감능력(.41), 종교적 신념(.16)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나이와 가정형편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1 성매매여성에 대한 태도	-	-.02	.04	.16*	.41**	.49**
2 나이	-.21	-	-.09*	.010	-.02	-.01
3 가정형편	.04	-.09*	-	.199**	.16**	.10*
4 종교적신념	.16*	.01	.19**	-	.14*	-.05
5 공감능력	.41**	-.02	.16**	.14*	-	.41*
6 성평등 의식	.49**	.05	.10*	.05	.41**	-

\*p<.05, \*\*p<.01, \*\*\*p<.001

### 3. 다중 선형회귀분석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상호 통제하고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적합성 검증결과 최소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적합한 모델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모델 F= 9.866\*\*\*).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았으나 (<.41) 독립변인간의 상호관계가 종속변인에 왜곡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공차한계>.26, VIF<3.71로 공선성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사회복지 및 신학전공, 가정형편, 공감능력, 성평등 의식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가설과 다르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성매매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공과 관련해서는 가설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되는 사회복지 및 신학 전공자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가정형편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표 5>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표준오차	Beta	t-값
나이	.008	.030	.029	.275
성별	-.206	.097	-.168	-2.122*
학년	-.064	.055	-.115	-1.163
전공경찰행정	.035	.090	.020	1.544
전공 사회복지/신학	.276	.120	.178	2.298*
전공기타	.037	.094	.030	.395
종교적신념	.024	.014	.099	1.699
가정형편	-.044	.020	-.123	-2.177*
음란물 시청횟수	.011	.023	.034	.484
성매수 경험	-.242	.149	-.096	-1.623
성매매 예방교육	.001	.097	.001	.013
성폭력 예방교육	.125	.100	.101	1.255
인권 수업	.124	.074	.099	1.682
공감능력	.184	.072	.158	2.572*
성평등의식	.594	.078	.543	7.630***
R-Square			.399	

\*p<.05, \*\*p<.01, \*\*\*p<.001

또한 공감능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나이, 학년, 경찰행정전공, 기타전공, 음란물 시청회수, 성매수 경험,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인권수업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베타값을 살펴보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은 성평등 의식(.543)이었으며, 사회복지/신학전공(.178), 성별(.168), 공감능력(.158), 가정형편(.123) 순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인들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39% 상당이었다( $R\text{-Square}=.399$ ).

## V. 결론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요건에 해당되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10대 기출 여자 청소년들이 쉽게 성산업에 유입되고, 또한 성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조직폭력단체의 개입이 많고, 성매매 여성들이 착취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체계로 연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물론 일선 경찰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자 실행되었다. 50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긍정적/지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회귀분석결과 성평등 의식과 공감능력, 성별, 전공, 가정형편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였다. 즉, 성평등 의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사회복지/신학 전공자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낮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해 긍정적/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한 긍정적/지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기능과 관련하여 Mackey와 동료들(2006)은 사회내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은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Astin(1977), Weiner와 Eckland(1979), Zimbardo et al(1977) 등의 초기 학자들 뿐만 아니라, Mackey와 Courtright(2000), Falco(2008), 조계표와 김영주(2015), 이정덕과 장정현(2015)의 연구를 통해서도 교육을 통해 태도와 인식이 개선 될 수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성평등 의식이 대학의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과목, 공감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과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단일의 과목을 각각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 공감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에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람직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0대 폭력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강화되면서 (La Vigne et al., 2007; Berkowitz, 2000; Battistich, 2000), 인성교육 과목을 별도로 개발하는 노력과 함께 각 교과목에 인성교육적인 요소를 접목시킨 방법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각 전공과목은 물론 교양과목에서 내용적인 요소에서 성평등 의식, 인권의식, 공감능력 향상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 또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다른 변수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은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즉, 이러한 교육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매매 여성에 대한 긍정적/지지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유의미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과 시기 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특별법상에 따라 교육기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편입생 대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성매매/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본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235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년은 1학년(36%)이었으며 이어 2학년(24%), 3학년(23%), 4

학년(16%) 이었다. 이러한 결과와 부합되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집단은 1학년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시기와 빈도,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진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분석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개발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를 국내 상황에서 적용하는 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일부분만을 활용하였으며, 보완하기 위해 수행자에 대한 태도 척도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개발된 20개 항목의 척도를 사용한 한계가 있다. 요인분석과 타당성 조사, 신뢰도 조사를 거치기는 했지만 향후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가 좀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 뿐만 아니라, 신입경찰, 경찰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각 대상 집단에 맞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에 대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공정식 (2015).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5, 7-35.
- 국가인권위원회 (2012). 나는 자랑스런 성매매방지 활동가.
- 김명환·안혁근 (2006).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 성매매특별법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40(4), 469-490.
- 김복규·김선희 (2006).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8(2), 163-183.
- 김태완 (2014). 성구매 경험 남성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존스쿨) 수강자를 대상으로. 교정복지연구, 33, 117-140.
- 김현선 (2002). 성매매 폭력성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성민 (2015).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가능성 고찰. 형사법연구, 27(4), 3-23.
- 박정미 (2011).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7(2), 35-72.
- 박찬걸 (2012). 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3(2), 297-333.
- 박혜진 (2007).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 형사법연구, 19(4), 27-42.
- 박혜진 (2009).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사법연구, 21(3), 271-290.
- 송관재·이재창·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1), 119-136.
- 신정아·황혜원·박현순 (2012). 청소년이 지각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 의식과 성주체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강교육보건의학회, 29(1), 27~38.
- 여성가족부 (2014). 2013 성매매 실태조사.
- 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가족 관련 법률 입법 동향: 2014. 7. ~ 2015.
- 오픈 소사이어티 (2001). 성매매관련 국민인식조사.
- 오혜란 (2004).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67, 37~80.



- 임상규 (2005).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1), 57-62.
- 이규은 (2005). 일 지역 남자대학생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 태도 및 행동. 여성건강간호학회, 11(4), 296~306.
- 이덕인 (2015). 성매매처벌과 재범방지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43, 193-219.
- 이은진 (2009). 성인 남성의 성 구매 경험에 따른 성매매와 성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5(3), 377-398.
- 이정덕·장정현 (2015).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393-422.
- 전병주·윤상용 (2015). 남성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령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 159~170.
- 정진경·양계민 (2003).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과 관련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53~75.
- 조국 (2003).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대책. 형사정책연구, 15(2), 82-101.
- 조계표·김영주 (2015). 경찰윤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5, 129-159.
- 조진경 (2015).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토론회, 10월 19일.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 티엔에스 TNS Korea (2004). 성매매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 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2009).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 한국여성개발원 (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II): 전통적 소득원의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 2. 국외문헌

- Astin, A.W. (1977). *What matters most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asow, S. A., & Campanile, F. (1990).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as a function of attitudes toward feminism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 135-141.
- Battistich, V., (2000). Character education prevention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 Berkowitz, M. W. (2000). Character Education as Prevention. *Improving prevention effectiveness*, 37-45.
- Brehman, B. R. (2010).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Master Thesis.
- Falco, D. L. (2008). Assessing Students' Views toward punishment: A comparison of punitiveness

- among criminology and non-criminolog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Ingram, Helen & Schneider, Anne. (1995). Social Construction(continued): A Response to Robert Lieberma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441-446.
- Jakobsson, N. & Kotsadam, A. (2009). *What explain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Institutionen för nationalekonomi med statistik.
- Jung, J. K., & Yang, K. M (2003). Factors constructing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 prostitu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8(3), 53-75.
- Kim, S. W. (2003). *Theory and practice of sexual education, sexual counselling*. Seoul, Korea: Education Inc
- La Vigne, N. G., Brazzell, D., & Small, K. (2007). *Evaluation of Florida's faith-and character-based institutions*: Final report. Urban Institute, Justice Policy Center.
- Levin, L., & Peled, E. (2011). The Attitudes toward prostitutes and prostitution scale: a new tool for measuring public attitudes toward prostitutes and prostitution.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1(5), 582-593.
- Mackey, D. A., & Courtright, K. E. (2000). Assessing punitiveness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criminal justice majors with other majors. *The Justice Professional*, 12, 423-441.
- Melvin, K.B., Gramling, L.K., & Gardner, W.M. (1985). A sca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prison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2(2), 241-253.
- Weiner, T. S. & Eckland, B.K. (1979). Education and political party: the effects of college or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1), 911-928.
- Zimbardo, P. G., Ebbesen, E. B., & Maslach, C. (1977). *Influencing attitudes and changing behavior*. Reading, MA: Addison Wesley.

**【Abstract】**

##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Prostitutes among University Students**

**Psrk, Sun-Young**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prostitutes and factors affecting their attitud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ge, grade, major, gender, religion, religious faith, watching pornography, prostitution experience, empathy level, anti-prostitution/anti-rape /human right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level were constru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Using self-administered survey method, 502 students participated in survey.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average of respondents' attitudes toward prostitutes 4.19 was higher than median value(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a male student, a social welfare and theology major student, a respondent with lower social-economic status, a respondent with higher level of empathy, and gender equality is more likely to demonstrate more supportiv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prostitute. Based on research results, developing programs aimed at enhancing empathy and gender equality, and implementing character education and prostitution/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were provided as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 prostitute, prostitution, gender equality, empathy, prevention program**